

실존주의 문학과 그 의의

작가 최규자

실존분석(實存分析)은 빈스방거(L.Binswanger)에 의하여 처음으로 제창된 현존재분석(現存在分析)과 같은 뜻이다. 빈스방거는 정신병 환자의 치료에 있어서, 앓고 있는 사람의 구조를 그 사람의 현존재 즉 실존과 그 생활 세계를 내면에서 파악하려고 시도하였다. 가령 심리요법에 의하여 치유하였다하더라도, 그 인간의 구조에 어떠한 인간적 변화가 일어났는가 하는 것을 동시에 묻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였다.

하이데거의 사상인 현상학(現象學)과 정신분석의 깊은 영향하에 있다. 또한 사르트르의 <실존적 정신분석>은 사람의 일상적인 행위를 해독하였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 기획이나 선택 안에서 상징적으로 나타나 있는 근원적 선택을 뚜렷히 하려고 시도하는 것이다. 현상을 중시하는 학설이 현상학인데, 의식의 본질을 지향적 작용으로 파악하여, 그 본질적 구조를 분석하고 기술하는 것이다.

프랑스의 작가 사르트르(J.P.Sartre)의 출현에 의해, 실존주의 문학이라고 하는 새로운 문학경향이 크게 부각되었다. 일반적으로는 사르트르, 보부아르, 카뮈 등이 이에 속한다.

그러나 이 명칭은 일반적으로 외부로부터 특히 저널리즘쪽에서 편의적으로 붙인 말이며, 사르트르 자신은 그의 평생에 한번도 이 명칭을 사용한 적이 없다.

넓은 의미로 해석하면 체코 출신의 유대인 작가나 영국 엘리자베스 시대의 극작가이며 시인 말로(Christopher Marlowe : 1564-1593) 등도 당연히 참가하며, 다시 소급해서 토스토예프스키는 물론 사상가나 파스칼과 키에르케골 등도 포함된다.

프랑스의 마르셀, 영국의 윌슨 등도 이에 속한다. 이들에게 한결같이 공통된 것은 뭐니뭐니해도 인간존건의 탐구이다. 인간은 우연히 태어나, 다른 인간과 우연히 서로 만나서 그리고 고독 속에서 지내다가 고독하게 죽어간다. 도무지 물러설 수 없는 조건을 향해, 어떤 자는 신에게 도움을 구하고, 또다른 자는 다시 한번 인간으로 돌아온다.

우리들의 존재가 우연이며 어떤 하등의 의미도 없다고 한다면 우리들 자신이 그 의미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라고 하는 것이다. 특히 이것은 마를로·사르트르·카뮈와 같은 무신론적 실존주의자의 입장이다.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체험하고, 과학의 진보 발전이 인간의 생활을 고도화함과 동시에, 전쟁의 위기를 증대시켰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인류붕괴의 예감에 커다란 위협을 느낄 때, 실존주의적 경향은 가공(可恐)할 만한 위력으로 현대문학 전체에 침투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절망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말하는 사람이 절망해 있다는 것을 반드시 의미하지는 않는다. 말로나 기타의 현대 작가의 작품이 여하히 암담할지라도 그것은 절망을 뛰어넘어 인간에게 주체성을 회복시키기 위한 위대한 모색이다.

그런데, 문학이 한 개의 예술작품이 되기 위해서는, 사상과 이미지가 혼연일체가 되어 융합이 되지 않으면 안된다. 이와 같은 견지에서 생각하면, 말로의 《인간 조건》, 사르트르의 《구토》, 카뮈의 《이방인》, 카프카의 《성(城)》, 《심판》과 《변신》 등은 일급문학 작품일 것이며, 이들은 실존주의적이란 좁은 테두리를 훨씬 뛰어넘어 시공(時空)을 초월한 우수한 작품으로서 통용되고 있다.

이러한 작품을 하나하나 자세히 뜯어서 검토해보면, 거기에선 뽑아버릴 수 없는 개인차를 인정할 수가 있다. 가령 부조리(不條理)라는 말을 인용해도 각자에 따라서 이에 주어진 의미와 뉘앙스는 매우 다르다. 환언하면 실존주의 문학이라는 호칭으로 일관되는 것은 대부분의 문학적인 표찰이 그러한 것같이 겉으로 보이는 단순한 의상(衣裳)에 불과하다.

문학이론으로서의 사르트르의 《문학이란 무엇인가》

라는 유명한 평론이 있다.

여기서 그가 제창하는 앙가주망(engagement)의 문학은 그의 사상과 긴밀하게 결부되고 있다. 그에 의하면 인간은 절대적인 자유존재이며, 그 자유는 자유를 속박하는 조건과 부딪침으로써 드디어 개시(開示)된다고 주장하였다.

《저항하는 세계 속에 구속된 것으로서만 자유인 대자(對自 : fuer sich) 즉 물자체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 구속을 도외시하면 자유의 개념은 의미를 잃는다》라고 사르트르는 역설하였다. 즉자존재(卽自存在) 곧 사물과 같은 것에는 미래는 없으나 대자존재, 즉 인간은 미래로 향해서 자기투기(投企)를 감행한다고 주장하였다.

물자체(物自體 : thing-in-itself, Ding an sich)는 현상계(現象界)의 뒤에 있어 현상계를 나타나게 하는 본체로 생각할 수는 있으나 알 수 없는 것인데 칸트가 처음으로 쓴 말이다. 즉자(卽自 : an sich)는 현상에 독립한 그 스스로의 존재자체인데, 변증법적 운동에 있어서 아직 대립의식이 없는 상태를 말한다.

그 사상을 문학에 적용하면, 문학작품이라면 칸트가 말한 것과 같이, 먼저 사실로서 존재하고, 그러한 연후에 보이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볼 때에만 그것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먼저 독자의 호소이다.

작가는 그가 선택하는 세계관에 의해 독자의 범위를 한정하고, 독자를 선택하는 일에 의해 반대로 그의

세계관이 제약을 받게된다. 작가는 그가 살고 있는 역사적 사실의 상대성과, 형이상적(形而上的)인 절대성 즉 인간의 실존적 조건과를 통합시킨 문학을 기필코 만들어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사르트르의 문학이론이며, 이에 기인해서 소설 수법에도 언급하고 있으나 그의 주장이 모든 실존주의 문학에 통하여 부하된다고는 단언할 수는 없다. 

